



## 韓國産業保健의 目標

曹 圭 常

가톨릭醫大學長 · 本協會 副會長

### 1.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강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할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귀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며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건강입니다. 우리에게 금은보배가 있더라도, 백만대군을 호령할 수 있는 영화가 있더라도 건강을 잃게 된다면 이것은 모두 다 허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 속에서 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부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사업체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근로자 자신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기본이요 자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건강에 대하여 소홀히 지내며 무관심한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겪게 마련이고 항상 질병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또한 병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우리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건강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정확히 대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 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체격이 크다고 하여 또는 힘이 세다고 하여 반드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정의하여 「비단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건강을 해치는 많은 인자들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생활 환경은 덥고 추우며 물이나 공기는 오염되어 있고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병원체와 기생충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식품들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많은 영양소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부족하면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 하여야하는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정신 건강에 있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건강을 해치는 많은 인자 속에 있어 이에 굽히지 않고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환경인자에 대한 인체내부의 항상성(안녕의 상태)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로 미국에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우리나라 환경에서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농촌에서 건강한 사람이 도시생활에서 건강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에 있어서 작용인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외부 환경에 대하여 적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응하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그 능력이 클 수록 건강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는 적응하는데 한도가 있으므로 외부의 여러 작용인자들이 이 한계를 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계를 넘게 되면 우리의 생리적 기능은 파탄이 일어나 질병상태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사회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서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기본 권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건강을 영유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 일 하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 보다도 여러가지 유해하며 위험한 환경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고로 산업보건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주력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2. 건강의 책임은 사회에 있다.

질병의 원인을 잘 몰랐던 옛날에는 병의 원인을 죄의 댓가로서 생각하였던 우스꽝스러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 있어 질병의 성립은 질병을 이끄는 병원체와 그것이 조성되는 환경 그리고 인체의 저항력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질병을 조성하는 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기 환경이라 함은 물리 화학적인 생활과학분야의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등 모든 환경을 뜻합니다. 고로 질병은 개인의 잘못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 공동 책임하에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병을 사회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서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기본 권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건강을 영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사회 공동의 노력으로서 퇴치하는 데는 어느 일부의 힘 예컨대 의사나 간호원에 의하여서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분야의 사람과 모든 자연과학의 분야의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국민 각자의 협력으로써만이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질병은 위에서 말 한바와 같이 사회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건의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질병의 실태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무슨 병으로 매년 얼마나 죽고있고 병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잘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구나 보건의 가장 기본이되는 출생과 사망의 신고 조차도 제때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니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파리나 쥐를 보기 어렵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리나 쥐의 번식이 안되도록 이들의 먹이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가차없이 처벌할 수단 있다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해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합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과 같은 국가 사회의 총화로서의 노력이 이루어 질때 국민의 건강도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3.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

근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치료하는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생기고 전문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의사와 간호원이 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좋은 의료시설과 치료약이 발견됨에 따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해나 질병 중에는 간단한 작업환경의 개선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많은 재해와 질병이 일어나 생산은 떨어지고 근로자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라 의료비는 나날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병이 났을 적에 개인의 힘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에서 1970년까지 10년간 미국에서는 일반 물가가 30% 올랐는데 비하여 의료비는 3배나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치료이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보아도 그러하거나와 질병의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의 몇 10분의 1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가 홍역에 걸린 후 치료하자면 1개월 가까운 기간과 적어도 10여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지만 이것은 몇천원의 예방주사로써 훌륭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치료기간 중 간호하기 위하여 부모와 가족이 기울이는 노고와 경제적 손실을 생각치 않고서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많은 소화기 전염병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을 끓여서 먹기만 하면 예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 본인의 고생이나 일을 못하므로써 오는 손실은 물론 많은 치료비를 써야하므로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질병의 원인을 간단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못하여 개인으로나 사회적

으로 큰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예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해나 질병 중에는 간단한 작업환경의 개선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많은 재해와 질병이 일어나 생산은 떨어지고 근로자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우리 주변의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하는 데서 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 4. 산업보건의 목표와 방향

역사가 증명하듯이 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도시형성을 가져 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공장을 중심으로 모임으로써 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회의 혁명이 수반됩니다. 이때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인구의 밀집으로 인한 보건의 문제입니다. 더우기 공장과 도시위생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초창기에 농촌에서 나온 많은 근로자들은 비위생적인 작업과 생활환경 속에서 집단적으로 전염병에 걸렸으며 공장 주변의 도시는 전염병 전파의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영국에 있어 공장 근로자들의 사망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수배나 높았다던가 가까운 일본에 있어 방직여공들의 높은 결핵이환율을 기록한 여공애사등 많은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발전 초기에 있어서는 영세한 기업의 자본을 늘이기 위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이 일하였으며 또한 싼 임금을 주기 위하여 연소자와 부녀자들이 많이 고용됨으로써 이들의 건강적 희생이 컸던 것입니다.

보건관리자와 요원들이 하여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이들은 질병을 치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건강을 저해 시키는 작업장 내의 인자들을 찾아서 이를 개선하는데 제 1의 적인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법이 생겨 노동시간의 규제, 부녀 근로자의 보호, 위험 유해 작업의 제한등을 규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인권의 옹호와 노동과학 산업보건의 발전함에 따라 노동력의 중요성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들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기업경영의 합리화에 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보전은 각종작업에 있어 그 작업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배치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채택되고 있고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방법과 작업속도 휴식시간의 안배등 일하는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인간 공학의 분야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의 내용이 과거의 육체적 근육노동으로 부터 하루종일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거나 많은 기계를 감시하는 정신적작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심리와 정신위생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보건의 분야는 예방의학 속에 있어서도 일반 질병의 예방외에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많은 분야를 연구 해결해 나가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보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되어 있고 각사업장의 보전은 보건관리자의 책임하에서 보건관리 요원이 이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와 요원들이 하여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이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건강을 저해 시키는 작업장내의 인자들을 찾아서 이를 개선 하는데 제 1의 적인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업

장을 항시돌아 보고 그 유해한 원인들을 조사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어떠한 건강상태에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로 보건교육에 주력하여야 하며 항시 건강상태에 응하여 주어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의 지도 감독은 노동청의 소관입니다. 노동청 산하 각지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에 배치된 근로감독관은 일선에서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수백명의 감독관으로서 수만개사업장의 일을 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보전은 사업장자신이 자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나 요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기술과시설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선진국가에서는 공업단지속에 산업보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산업보건 썬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주들의 공동출자로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7개공업단지에 대한산업보건협회산하인 산업보건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각의과대학에서 기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입니다. 복지국가를 건설해나가는데 있어 우리의 사명은 크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